



신을 탐하다

(Who made God?
Searching for a theory of everything)

에드거 앤드류스 저 | 홍종익 옮김 | 북 있는 사람 펴냄
 6 최용준 (한동대 교수)

저자는 전문기쁜 아니라 일반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는 범용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과학과 세상을 조명하고, 단순한 비판이 아닌 논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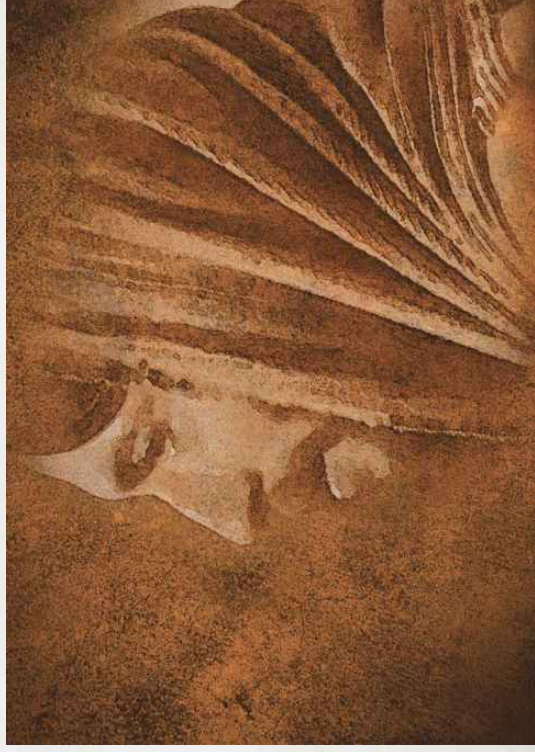
본서는 영국의 탁월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에드거 앤드류스 (Edgar H. Andrews)가 리처드 도킨스를 중심으로 한 '세로운 무신론'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유쾌한 방법으로 기독교 유신론을 변증한 것이다. 에드거 앤드류스는 고분자-물리학 분야에 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탁월한 과학자로 1967년 런던대 학교 퀸 메리 칼리지에 재포화부를 세우고 교수와 학장을 역임 했다. 1972년 미시간 분자연구소 심포지엄에 특별 강사로 초청 된 네 명 중 한 명이기도 한 그는, 현재 런던대학교 재포화부 명예교수이자 하트퍼드셔 헬원기든시티 캠퍼스교회의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 시절 성경을 읽고 회심한 이후, 학업을 계속하면서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양자 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책을 저술했다. 나아가 1986년에는 옥스퍼드대학교의 권위 있는 토론 클럽인 옥스퍼드 유니언의 '헉슬리 기념 토론회(Huxley Memorial Debate)'에서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주제로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논쟁하기도 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이 출간된 이후, 저자는 전문기쁜 아니라 일반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는 범용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 리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과학과 세상을 조명하고, 단순한 비판이 아닌 논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완성했다. 본서는 출간 즉시 영국의 각종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영국 아마존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현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저자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주석서를 쓰기도 했다. 그의 다른 책 「From Nothing to Nature: Young People's Guide to Evolution and Creation (무에서 자연으로: 진화와 창조에 대한 청년들의 가이드)」도 1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도킨스와 그의 동표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제기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이 ‘신과 창조’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가 있음을 예 리하게 지적한다. 그는 이 점을 그의 풍부하고도 전문적인 지식 (현대 물리학의 발전, 우주·시간·도덕의 기원, 온갖 범칙과 생명, 인간의 정신 등), 그리고 특유의 유머로 삼고 재미있게 논 증하고 있다. 다윈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적, 자연주의적 세계관 과 무신론의 주장들을 분석, 비판하고 있는 이 책은, 깊이 있고 진지한 사유를 싫어하고 점점 피상적인 삶을 선호하는 현대인 들에게 과학과 신앙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양자는 서로 대립적 이며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견해이며, 둘째로 양자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 셋째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중복됨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양자 는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도킨스는 과학이란 신앙에 대립하며 자연 과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 반면, 과학자라는 존재한다는 믿음은 필요함을 강조한다. 왜냐 하면, 과학이라는 학문 활동 자체가 자연법칙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는 영 역이 이해 가능한 일종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진제적 믿음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나아가 통합될 수 있을 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물리학의 최신 이론인 끈이론을 설명하면서 과학 활동의 가설적 성격은 보 여준 다음, 성경의 ‘하나님 가설’을 목격지가 아니라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후 장별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한 후 거기에 해당하는 진화론의 주장과 근거를 소개 하고 비판한 뒤, 그 주제에 대해 하나님 가설의 입장과 타당성을 대안으로 검토하 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령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유전자 부동 등 진화론의 기본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는 핏지세의 부리, 해충의 살충 제 내성, 감상작할구 민혈 등 여러 사례를 참신한 비유와 재미있는 유머를 곁들여 매우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시종 유쾌한 분위기 가운데 친절 하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을 통해 다윈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과 무신론의 주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면서 신선한 통찰과 재치 있는 서 술로 과학과 신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차여행

장거리 기차여행을 한 사람이 역방향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불평을 했다. 친구가 편지를 주었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좀 바꾸었으면 되지 않았겠어?”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에 그는 화를 버럭 냈다.
 “어떻게 바뀔? 앞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하지만 본서를 읽으면서 필자는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저자가 나를 대로 전문적인 내용을 매우 쉽게 설명하는 동시에 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함을 볼 수 있었다. 그 밑에도 도킨스가 자신의 견해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진화론적 무신론이 그에게는 하나의 전체적 신앙이요 확고한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종교적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유신론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학문적 회심은 그 영적 뿌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사랑의 역사만이 가능할 것이다. (오한복을 오강)



최용준 한동대 교수이며 WEM(세계나 다름없어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및 ETR(행기)에 복음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식학과를 졸업하고 풀라델피아 웨스턴신학대학원(미국)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거쳐 남이공 포체프스트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툴링겐대학교, 브뤼셀 한인교회 담임목사와 KMS(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KOSTA, YWAM, CBMC, Diaspora 2011 강사 및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